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정치 불확실성 가세, Worst Case 가능성 확대. 대응 전략은?

- 계엄령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KOSPI Worst Case 가능성 확대
- KOSPI 2,450 ~ 2,500선 안착 전까지 신규대응 자제. 홀딩 & 분할매수 전략 가능
- 다양한 악재 선반영. 대외 긍정적 변화 가속화. KOSPI 25.1H 중 분위기 반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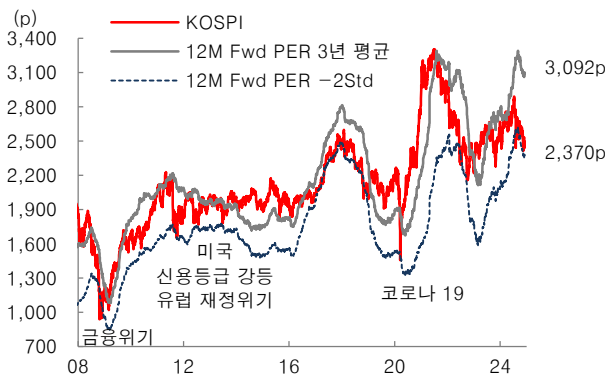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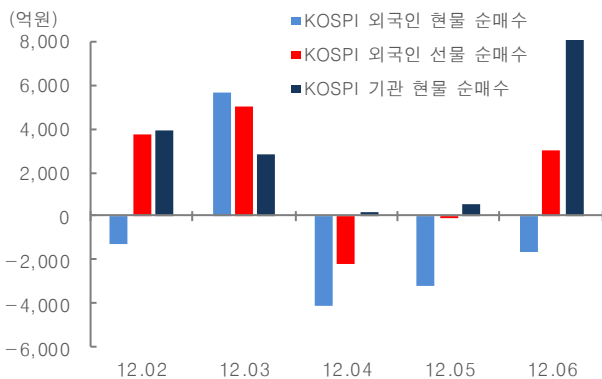
40여년만에 계엄령 사태가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수습과정에서 여진이 진행 중이다. 지난 주말 2차 계엄령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에 원/달러 환율은 장 중 1,430원선에 근접했고, KOSPI는 2,400선을 하회했다. 다행히 곧이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빠르면 6일 중 조기에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만회, 2,420선을 회복했다. 여전히 정치 변수가 국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OSPI는 그동안 지켜왔던 2,450선을 힘없이 내주었고, 12월 6일 단기 저항선 역할을 했다. 12월 2일자 "[12월 & 25년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고진감래(苦盡甘來). 연말 랠리 기대. Worst Case도 마지막 하락 파동"에서 언급한 Worst Case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2,450 ~ 2,500선 회복/안착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규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유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추격매도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현 지수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저점 확인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신규 투자를 준비한다면 2,400선 이하에서는 변동성 확대시 분할매수가 유리할 전망이다.

Worst Case로 추가적인 하락,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투자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7월 11일 고점 이후 진행된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KOSPI는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악재들을 선반영해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과 실망감,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와 수급상황으로 인해 현재 KOSPI는 작은 변수에도 휘청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펀더멘털, 매크로, 투자환경이 변한 것일까?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중국, 유럽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외 변수는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 중국, 유럽 경기 회복은 한국 수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악재들을 선반영하며 Deep Value 구간에 진입한 KOSPI의 반전을 기대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계엄령 사태 이후 외국인 현물 매도 제한적, 선물 매수 전환. 중요 지지선인 PER 3년 평균의 -2Std = 2,370 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